

2025년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학술대회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모색

일시 : 2025. 10. 30.(목) 14:00~17:00

장소 :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

- 주최 :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 후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지원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프로그램

■ 일 시 : 2025. 10. 30.(목) 14:00~17:00 ■ 장 소 :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모색

14:00~14:20	20'	【개회식 인사말씀】 문태식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대표)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사회 :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14:20~14:50	30'	【기조 강연】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경과와 의미” 강연 :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
14:50~15:15	25'	【주제발표 1】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발표: 김양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15:15~15:40	25'	【주제발표 2】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계승 방안” 발표: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5:40~16:00	20'	휴 식
16:00~17:00	60'	【종합토론】 좌장: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토론: 이용길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대표) 토론: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
17:00~		폐회식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학술대회

기 조 강 연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경과와 의미

신 영 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경과와 의미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 내포의 동학농민군과 대규모 희생

태안은 충청도 내포에 속한 지역으로 동학농민혁명사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태안의 동학농민혁명은 충청도 서해안에서 전개된 갑오년의 상황과 관련해서 논해야 한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에서 충청도 내포를 18개 읍으로 말하고 있다. 『여지도서』에 기록한 내포는 서천·면천·서산·태안·온양·평택·홍산·덕산·청양·남포·비인·결성·보령·아산·신창·예산·해미·당진이었다.

1894년 9월 하순 충북 일대의 여러 동학 조직에 결집한 농민들이 일제히 무장 봉기하였다. 9월 봉기는 1차 봉기인 봄 봉기와 비교해서 가을 봉기, 또는 재봉기나 2차봉기라고 한다. 가을 봉기의 목적은 척왜(斥倭)였다.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일본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동학 농민군이 거의 전국에 걸쳐 봉기한 것이다.

조선 침략을 노리고 10년 동안 군사력을 키워왔던 일본은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호기로 판단했다. 조선과 청국에 파견한 일본군 정보장교를 통해 조선과 청국 사정을 상세히 파악한 일본정부는 청국과 전쟁을 벌일 것을 결정했다. 전쟁 지휘부인 대본영을 만들고, 청국군보다 먼저 육군 혼성제9여단을 서울로 급파했다. 일본군은 6월 21일(양 7월 23일) 경복궁을 기습해서 국왕을 인질로 잡고, 경군 병영을 점거해서 각종 무기를 빼앗았다. 이어 6월 23일(양 7월 25일) 서해안 풍도 인근에서 청국군 군함을 공격했고, 6월 26일(양 7월 28일)에는 충청도 성환에서 청국군 진영을 기습하였다.

국왕 고종이 일본군에게 사로잡힌 위기 사태와 일본의 내정간섭 실상이 전국에 전해지자 충청도에서는 양반 유생이 의병을 계획했지만 충청감사가 금지하였다. 인질이 된 고종에게 해가 미칠 것을 우려해 의병 봉기를 금지한 것이다. 일본군은 8월 17일(양 9월 15일) 평양전투와 그 다음날의 황해해전에서 승리해서 조선 내에서 청국군을 축출하면서 황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태안은 청일전쟁의 실상을 직접 목격한 지역이었다. 아산만에 있던 청국 북양함대 소속 광을함(廣乙艦)과 조강호(操江號)가 일본 함대의 공격을 받고, 조강호는 나포되고 광을함은 태안 연안의 죽도까지 도피했다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했다. 청국 병정 100명이 6월 23일 태안 관아에 들어왔는데 태안부사는 이들을 청군 진영으로 호송하였다.

성환 월봉산 일대에서 숙영하던 청국군은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패퇴하였다. 충청감사는 “서산·해미·홍주·덕산·예산 등에는 태안에서 온 중국 병사와 성환 싸움에 져서 흩어진

병사들이 흘러들어와서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을을 수색하고 약탈하여, 백성들이 모두 놀라서 흩어졌습니다.”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런 실상을 내포의 주민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다.

이런 위기에 전봉준 장군이 9월 중순 재봉기의 결단을 내리고 삼례에 동학농민군을 집결시켰다. 봄 봉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학교단도 9월 18일(양 10월 16일) 기포령을 내렸다. 기포령을 전달받은 각지의 동학 조직이 일제히 봉기하였다. 충청도는 전역에서 호응하여 동학농민군이 각 군현 관아에 보관된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을 강화했다.

내포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사실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청일전쟁 초기의 풍도전투와 성환전투에서 일본군이 청국군을 일방적으로 물리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대규모로 봉기하여 일본군과 싸우려하였다.

1924년 4월 「개벽」에 실린 기사 ‘전사상으로 본 충청남도’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 그 시점으로 보아 쓰기 어려웠던 ‘갑오동학과 충청남도’라는 항목의 글이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군 세력이 제일 강했던 곳이 충청남도였고, 전개 과정도 충청남도가 중심이었다. 당시 덕포 예포 청포 충경포 산천포 홍포 등이 있었다. 덕포는 박인호를 중심으로 한 덕산, 예산, 신창, 온양, 홍주, 결성, 면천, 당진, 서산, 태안, 천안, 목천 등 일대와 경기의 연천, 양주 일대에 세력이 있었다. 예포는 박덕칠, 청포는 손천민 외 문천쇠, 이영범, 충경포는 신태우, 이진구, 산천포는 한명순, 이창구, 홍포(洪胞)는 한모 이모가 중심인데 덕포가 가장 세력이 강대했다.”

마치 최근 연구 성과와 같이 잘 정리한 글이다. 이와 함께 덧붙인 다음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그때 태안에서 학살된 자 7천과 홍주 및 기타 각군에서 전사 혹 학살된 자를 합하면 충남 일대만 약 7만여 명.”

충남 일대에서 약 7만여 명이 학살되었는데 태안에서 학살된 사람이 7천 명이라고 한 것이다.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갑오년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난리 사태를 경험한 사람이 많았던 1924년에 나온 이 표현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충남에서 벌어진 전투는 많았다. 주요 전투만 보더라도 커다란 전투가 많았다. 금산전투, 천안 세성산전투, 예산 관작리전투, 당진 승전곡전투, 해미성전투, 홍주성전투, 공주 대교전투, 공주 이인전투, 공주 효포전투, 공주 우금치전투, 연산전투, 논산전투 등이다.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여러 전투에서 희생되었다.

이 전투 중 승전곡전투는 드물게 일본군에게 승리한 전투였다. 갑오년에 일본군 전사자가 나온 전투는 괴산전투와 연산전투 뿐이었다. 화공을 해서 밀려난 전투는 안보전투와 승전곡전투로 모두 충청도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이때 괴산전투와 승전곡전투 직후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장 야마무라 타다마사(山村忠正) 대위가 급파되어 호된 보복을 가했다.

다음 자료가 서산과 태안 등지에서 벌어진 보복과 학살 기록이 이토 스케요시(伊藤祐義) 인천병참사령관이 동학농민군 학살의 총책임자인 히로시마대본영 병참총감인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에게 보낸 전보이다.¹⁾ 일부 자료만 보아도 심각했던 상황이 확인된다.

일본군은 체포한 동학농민군을 잔인하게 처형하였다. 청국과 싸워 여순을 점령한 후 일본군은 며칠 동안 민간인과 포로를 대량 학살하였다. 그 사건은 서양 기자들이 목격해서 여순학살 사건으로 널리 보도하였다. 내포의 학살사건도 동일한 시기에 벌어진 참상이었다.

일본군의 보복 학살이 내포에서 태안이 가장 심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사료는 찾을 수 없다. 다른 군현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이 갑오년 사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던 당시에 널리 전해졌다면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 더구나 간행물을 통제했던 시기에 인쇄되어 나온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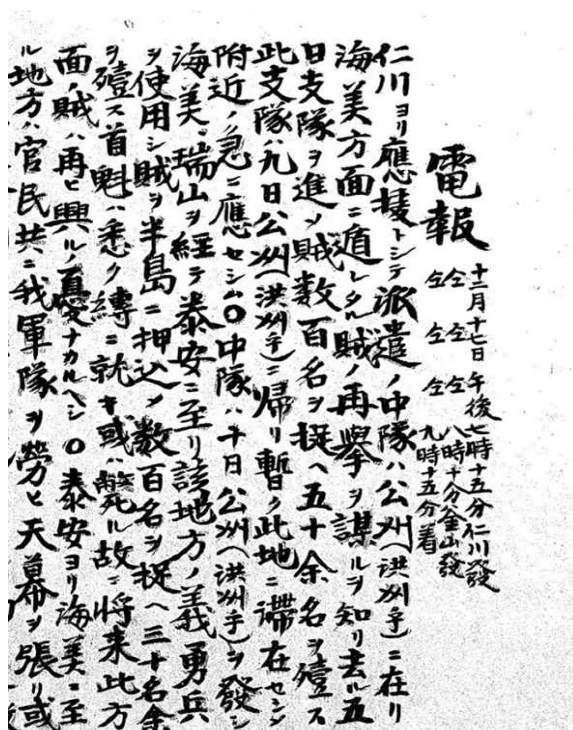
2. 태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은 좌절되었다. 안으로는 조선정부가 병란으로 간주하고 진압군을 파견해서 탄압하였고, 밖으로는 일본군이 증파되어 전국의 동학농민군을 제압하였다. 이 대사건은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침략기에 반란으로 규정되어 항일투쟁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다. 광복 이후에도 그런 관점이 유지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바르게 평가하는 작업은 학술연구에서 시작하였다.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조선의 개화운동이 실패한 사실을 밝히고, 청국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명치유신이 부국강병을 지향하며 군사력을 키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부패한 관료의 징치를 넘어서 정치와 사회 개혁을 보국안민 기치로 내세우고, 서세동점과 일본의 재침 우려를 척왜양창의라는 기치로 드러냈다. 학술연구에서는 더 이상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란이 아니었고, 근대사회를 여는 변혁운동이었다.

1) 양력 12월 17일자 전보.



그 다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1994년 100주년을 맞아 전국 여러 지역에서 후손들을 찾아내서 증언록을 간행하고, 유족회를 결성하는 사업을 벌였다. 여러 지역에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와 유족회, 그리고 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의 바른 평가와 인식,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중요한 사업으로 삼았다.

태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새로운 형태로 일찍이 시작했다. 태안 동학농민군 지도자 문장로의 손자이고 갑오년에 희생된 문구석의 아들인 문원덕이 1964년 7월 ‘동학정신선양회’를 만들고 기포지인 방갈리에서 추모제를 거행하고, 1965년 10월 유족회를 만들었으며, 1978년 ‘갑오동학농민혁명군 추모탑’을 세웠다.²⁾

기념물을 통한 과거 사실의 전승은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대 사건에서 중요한 사업이 된다. 1970년대에 자체 노력만으로 추모탑을 건립한 것은 두드러진다. 다음 표는 태안의 기념사업을 정리한 것이다.³⁾

날짜	내용	비고
1965.05.06	동학농민혁명 당시 순국한 혁명군 명단(288명) 작성	
2001.03.07	동학농민혁명 추모탑 정비	
2003.05.08	동학농민혁명 추모탑 주변 확장	
2003.11.06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추진 모금운동바자회 개최	
2004.06.10.	KBS 태안 지역 동학농민혁명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2005.03.08	SBS 태안 지역 동학농민혁명 녹화 방송	
2005.07.07	태안 백화산은 『순무선봉진등록』에 의하여 동학농민군의 내포 지역 마지막 항전지로 판명되어 유적지로 등록 추진	
2005.09.0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1차) 신청 접수 마감	(약 100명 등록)
2005.11.06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기념재단 백화산 교장바위 유적지 답사	
2006.03.06	동학농민혁명군의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관 건립 추진	
2007.07.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2차) 신청 접수 마감	(약 500명 등록)
2007.07.26	순도 순국자 명단(288명)의 문헌 평가 추진	
2008.10.29	원암 문원덕 태안교구장 공적비 건립	
2011.10.29	백화산(교장바위) 아래 동학농민군 지도자 피체지 기록비 건립	
2015.05.16	원북면 방갈리에 최초로 동학농민군 기포지 유래비 건립	
2016.12.30	『泰安에서 점화된 동학농민의 횃불』 발간	

또한 중요한 것은 갑오년에 활동했던 참여자들을 조사해서 『갑오동학혁명 당시 순도한 순도자 명단』을 만든 것이다. 한 지역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를 이처럼 많이 전해진 사례는 태안이

2) 문영식, 2020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콘텐츠 활용> 『동학학보』, 57권.

3) 이병규, 2017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콘텐츠 활용> 『충남 태안의 동학농민혁명과 역사박물관』

유일하다. 이런 성격의 명단은 남원군종리원의 『순교약사』가 있는데 태안의 명단과 기록이 자세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연구자들이 자료를 발굴하고 후손을 찾아내서 참여자를 확인했는데 그 시기가 늦어 증언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태안은 최소한 한 세대 이전에 이 사업을 1차로 수행했다. 이 명단은 모두 288건이 정리되어 있는데 태안과 함께 서산, 당진, 예산 등 내포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용, 처형 장소, 처형 방법, 나이, 직책 등을 입회원서의 형태로 기록하였다.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참여자와 유족 등록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갑오동학혁명 당시 순도한 순도자 명단』은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었다.

태안의 기념사업은 유적지 조사로 이어졌다. 방갈리기포지, 교장바위, 토성산처형지, 목네미샘, 통개처형지, 태안성 등이 조사되었다.

태안에서 전개한 사업 중 중요한 것이 1894년의 사실을 전해주는 기록을 발굴한 것이다. 『조석헌 역사』와 『문장준 역사』는 내포지역과 태안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를 현대어로 번역해서 『북집 일기』로 펴내서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출판과 전시회도 활발하였다. 『동학혁명과 태안』을 2001에 발간하였고, 2006년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교장바위』를 간행하였다. 2016년에는 『태안에서 점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을 펴내서 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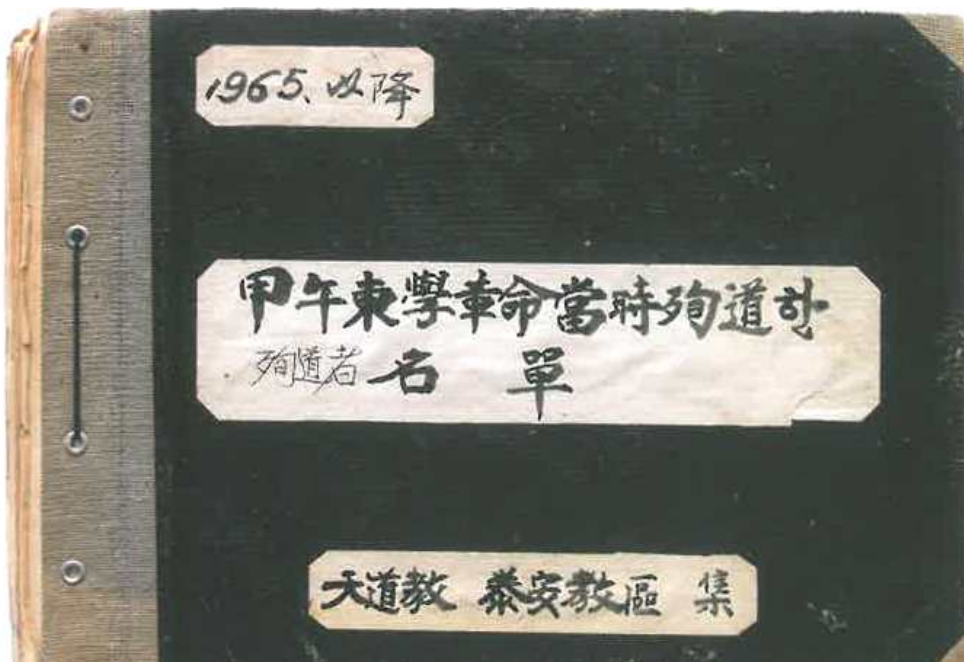
이러한 사업은 다음의 표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날짜	내용	비고
1990.10.05	동학농민혁명내포유족회장 문영식, 태안고등학교 초청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강연	
1997.07.15	태안군청 강당, '우리 고장 역사 바로 알기' 강연	
2001.04.29	군민의 날 동학농민군 가장 행렬에 원이중학생 사진 참여	
2002.04.19	태안 남중학생, '천도교와 동학농민혁명' 강의	
2003.05.15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 초청, '동학농민운동에 대하여' 강의	
2007.03.15	서산시 초청, '서산 태안의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의' 강의	
2007.11.08	제113주년 대회, '기념사업의 방향과 진로' 강의	
2008.05.08	2008 황토현 축제, '동학농민혁명의 현실화를 위하여' 강의	
2015.07.30	KBS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그리고 태안 동학유적지 방영	

태안 기념사업의 가장 큰 업적은 태안군의 도움으로 2021년에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개관한 것이다. 연면적 158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기념관은 1층 상설전시실에서 태안의 동학농민혁명을 알려주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태안 기념관은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박물관과 장흥 기념관에 이어 건립되었다. 이 기념관은 문장으로 관련 자료부터 태안 동학농민혁명을 전해주는 여러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후손이 제 공해서 소장 유물을 풍부하게 한 것이다.

특히 1960년대의 사진 자료는 갑오년 당시의 실상을 경험했거나 선대에게 직접 들은 후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태안의 기념사업이 전개된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진이다.





갑오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

1969년 갑오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



3.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성과와 의미

한국근대사의 커다란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은 민간에서 출발했다. 갑오농민전쟁 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1989, 서울),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1989, 전

주) 등을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전문연구자,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의 지역별 전개가 밝혀지고,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전라북도의 전주, 정읍, 부안, 고창, 완주, 남원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된 주요 지역인 광주, 공주, 태안, 상주, 예천, 하동, 홍천에서 잇따라 조직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처음 시작된 전라북도의 정읍에서는 1963년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건립해서 어느 지역보다 먼저 가시적인 기념사업의 성과가 나왔다. 그리고 1967년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조직해서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다. 전주와 정읍의 지역사회에서 적극 협력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태안의 기념사업은 방갈리에서 기포를 주도한 문장로의 후손이 갑오년에 순도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조사로 시작하였다. 인멸될 수 있는 사료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기도 했다. 백주년 이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유형과 다른 형태였다.

이 성과는 문장로의 후손이 소장한 각종 유물을 전시하는 기념관 건립으로 이어졌다. 역시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기념관이 이런 형태로 설립된 것은 드문 형태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올 만큼 치열하게 전개한 내포의 동학농민혁명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념관이다.

이 기념관은 전시 면적과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도 시작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기념관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내포의 중요한 근대사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학술대회

주제발표 1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 양 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 양 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I. 태안군 지역 현황

1. 태안군 일반 현황

■ 개요

- 태안군은 타의에 의해 서산군에 병합되어 75년간 내려오다 지난 1989년 1월 1일 법률 제 4050호에 따라 태안군에 복군됨으로서 군민이 모두 군세 발전에 활기 찬 전진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태안군은 현재 행정구역상 8개 읍면에 65개 법정리, 186개 행정리에 821개의 반, 그리고 493개의 마을로 형성.
-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국내 유일한 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안선의 길이가 559.3km이며 곳곳마다 절경을 이루고 있고, 또한 114개의 크고작은 섬들이 분포되어 있다 .
- 내륙은 저산성 구릉지로서 많은 산지가 개간지로 개발되어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리아시스식 해안은 만곡이 심하여 간척지가 잘 개발되어 있다. 또한, 태안군은 안면도 천연송림과 아름다운 해안을 있는 30개의 해수욕장과 전설을 간직한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음.

■ 군민현장

- 장구한 역사의 숨결을 지닌 우리 태안은 예부터 복된 고장이다.
이 풍요로운 터전에 백화산 정기가 어려 일찍이 여기 사람들은 남다른 기상으로 정의를 펼쳤으며 인정과 여유는 바다와 같았다.
천년의 문화의 형상과 애국충절의 기운이 천혜의 땅을 품미하여 모든 사람의 긍지와 심상이 서해의 상쾌한 바람과도 같으니 고장을 사랑하는 우리 태안군민들은 조상의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참된 사회 공동선이 꽃 피어나는 고장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1. 마애삼존불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장민답게 온화한 성품으로 도의와 예절을 지키며 문화예술창달에 힘을 쓰자.
- 2. 이중일선생과 많은 애국선열을 낳은 고장민답게 올바른 국민생활로 애국애족을 실천하자.
- 3. 해안국립공원의 고장민답게 자연을 사랑하며 친절과 정직으로 명랑하고 정겨운사회를 만들자.

4. 전통적 덕목을 유지 보존하며 참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슬기롭고 자랑스러운태안을 만들자.

■ 군정 시책



* 태안군청: <https://www.taean.go.kr/>

■ 민선8기 군정목표와 방침



■ 태안군의 역사문화분야 주요 실천계획

- 태안 이미지 각인 전략
- 즐거움이 있는 다아내믹 해수욕장
- 주요관광지 전략적 거점화
- 역사와 문화의 도시 태안 건설
 - *태안읍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 *태안읍성 종합정비 복원사업
 - *안흥진성 체계적인 복원
 -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
 - *신두사구 관광자원화

■ 시사점

- 동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태안군의 군정시책이나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태안군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으로 동학유적지가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앞으로 조성될 태안읍 역사문화의 거리와 태안읍성을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2. 태안군 문화관광 현황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19):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명승), 태안동문리마애삼존불입상(국보), 이종일선생생가지(기념물), 태안난도 팽이갈매기 번식지(천연기념물), 안흥진성(사적),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몽산리석가여래좌상(충남도 지정문화재), 경이정(지정문화재), 홍주사 만세루(지정문화재), 태안 목애당(지정문화재),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천연기념물), 태안소근진성(기념물), 태안향교(기념물), 남문리5층석탑, 백화산성, 송의사, 태안승언리상여(문화유산자료), 안양사(향토유적),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천연기념물)
- 무형문화유산(2): 황도봉기풍어제(충남도 무형문화재), 설위설경(문화재)
- 기타(10): 태안읍성, 백화산성, 토성산성, 두야리산성, 양잠리산성, 한의산성, 남무리5층석탑, 홍주사3층석탑, 이화산3층석탑, 이종헌추모비

■ 태안의 역사인물

- 이대순(충신, 공신), 이종일(독립투사, 민족대표 33인), 이종헌(독립투사), 문양목(독립투사)

■ 문화 관련 기관

-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태안문화원, 고남패총박물관,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군립도서관, 태안농업전시체험관, 태안 작은 영화관, 해양유물전시관, 해양치유센터, 태안유류피해극복기념관

■ 주요 관광지 및 테마관광

- 주요 관광지: 청산수목원, 안면도 자연휴양림, 천리포수목원, 안면도 주라기공원, 팜카밀레, 신두리 사구센터, 별동별 하늘공원, 해상낙시공원, 백화산 구름다리 등
- 태안 8경: 신두리해안, 백화산, 만리포해변, 안흥성, 몽산해변, 안면송림, 할미할아비바위, 가의도
- 테마관광
 - *바다여행: 해수욕장, 항구, 섬을 연결한 바다여행코스
 - *해안탐방로: 솔향기길, 해변길
 - *생태체험여행: 갯벌 체험, 마늘캐기 등

■ 주요 축제

- 태안문화제
- 태안거리축제
- 태안빛축제
- 국제 모개조각 페스티벌
- 바다낚시대회
- 백사장 대하축제

■ 시사점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없는 바, 적극적으로 문화재 지정 노력이 요구됨.
- 태안지역 근현대 문화재는 이종일(1979-1925) 생가(기념물, 원북면 옥파로 199-7), 이종현(1890-1957, 독립운동가) 추모비(문화재자료) 등이 유일하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연계 개발이 가능함.
-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협력 가능한 문화기관으로 군립도서관과 평생학습원, 농업전시체험관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동학 관련 축제는 태안문화제와 거리축제 등이 있으며, 이들 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태안군의 주요 관광지로 동학 관련 유적지는 없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특히 태안 8경의 하나인 백화산은 태안의 진산으로, 서해바다를 끼고 있어 풍경이 아름답고 정상에 오르다 보면 전통사찰인 태을암과 백제의 보물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국보)이 있다. 특히 백화산 아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으나, 태안군청 홈페이지에 연계 관광지로 소개되어 있지 않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백화산 문화관광자원(태을암,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백화산성, 백화산 구름다리)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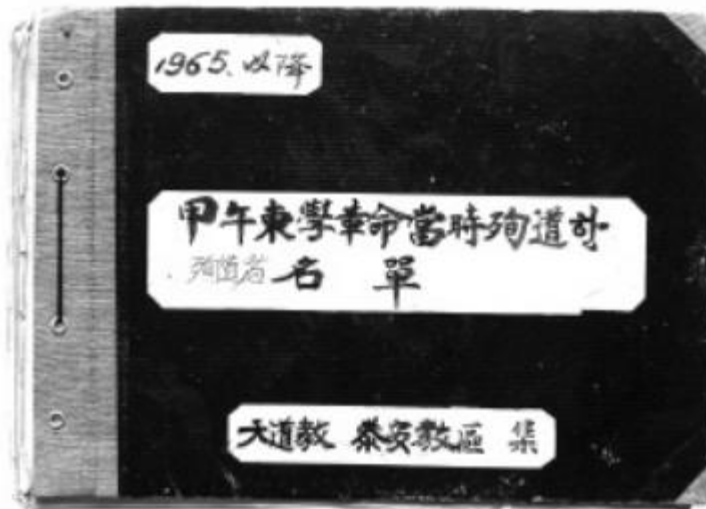
3.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및 기념사업

1)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1964년 7월 5일 내포지역 동학정신선양회 창립(회장 문원덕)
 - 전국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임
- 1965년 5월 5일 순국선열 추모제 개최(방갈리 기포지)
- 1969년 5월 3일 제2회 동학농민혁명 선양대회 개최(태안극장)
 - > 이후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은 유족회 중심으로 진행
- 1978년 4월 22일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

2)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 1965년 10월 6일 동학농민혁명 태안군유족회 창립(회장 문원덕)
- <<갑오 동학농민혁명 순도순국자명부>> 작성(1965)
 - 유족회 첫사업



3)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물 건립

- 동학농민혁명군 추모탑 건립
 - 1977년 12월 4일 갑오동학농민혁명군추모탑건립위원회 발족
 - > 1978년 10월 2일 추모탑 준공으로 해체
- 동학 전래비 건립
 - 2000년 10월 10일 동학 전래비를 추모탑 옆에 건립
- 동학농민혁명군 피체지비 건립
 - 2011년 10월 20일 백화산에 건립(천도교 중앙국, 태안문화원, 태안군 동학혁명참여자유
죽회, 태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참여연대)
- 방갈리 기포비

- 2015년 5월 16일 기포비 건립(서부발전주식회사 지원)
- 1894년 10월 1일 기포 기념
 - 청암 김학서 송덕비
- 동학혁명군 위령제 지원에 대한 송덕비
- 1909년 10월 27일 건립
 - 원암 문원덕 공적비
-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공적
- 2008년 10월 29일 건립



문원덕 공적비

3)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모와 선양
 - 1964년부터 개최하던 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를 1978년부터 추모탑 앞에서 거행(2023년 33회)
- 학생 백일장 및 골든벨 시행과 동학과 놀자
 - 학생 백일장: 초중고 학생 대상, 시와 산문 2개 부문--->태안군 문화제 행사
 - 골든벨 경연(태안군문화제)
 - 학생 역사동아리 동학유적지 탐방

식순

- 사회 : 조광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식전 행사(09:30~10:30)
 - 깃발 퍼레이드: 태안여고 후문 - 로터리 - 경이정 - 추모탑
- 기념 행사(10:30~11:30)
 - 개식사
 - 국민의례
 - 문예대회 입상자 시상
 - 헌시
 - 청수봉정 : 유족회장
 - 위령문 낭독 : 문화원장
 - 기념사 : 기념사업회장
 - 내빈 추모사 : 태안군수외
 - 유족 대표 인사 : 유족회장
 - 폐식사
- 문화 행사(11:30 ~)
 - 뮤지컬 공연(복점일기)

제 33회 동학농민혁명추모문화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역사의 무게와 하늘 마음, 사람다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영원한 기억과 기쁨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소중한 분들을 초청하오니 추모문화제가 더욱 중요하게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10.29.(일), 시간 : 10:30
장소 : 동학농민혁명추모탑

동학농민혁명태안군유족회장 문영식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장 정용주

- 자료 전시와 가장행렬
 - 매년 개최되는 태안문화제 참여
-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향토사 발간
 - <<동학농민혁명과 태안>> 등 5권 출간
- 동학농민혁명 연구토론회 개최

II. 태안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태안 방갈리 기포지

- 태안군 태안읍 원북면 발전로 457(화력발전소 내부 위치)
- 문장로(文章魯, 1846~1919)는 태안 원북면 방갈리에서 1893년 2월 초 박덕철을 통해 동학에 입도하였고, 그후 적극적인 포덕활동을 전개하여 방갈리의 접주가 되었다. 박인호가 이끌던 덕포의 기포령에 의하여 30여명의 동학 우두머리를 구출하기 위한 비밀회의가 방갈리에 살던 문장로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그들은 논의대로 태안관아를 점령하여 동학의 우두머리 30여명을 구출하였다. 이 여세를 몰아 면천 승전곡 전투, 신례원 관작리 전투, 홍주성 전투에 태안지역의 동학농민군을 대거 이끌고 참여했다. 그러나 1894년 10월 29일 홍주성에서 패한 이후 관군의 체포령을 피해 태안일대 해안의 토굴과 야산에 은신하면서 예포 동학 조직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900년 동학의 지도부들이 지시한 조직 강화 밀명을 받고 태안 수접주로 임명 되어 조석헌 등과 함께 비밀스럽게 조직 재건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로도 관군의 체포령을 피해 충남의 각 지역을 떠돌면서 포교활동을 벌이다가 1910년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무한천변의 갈대밭으로 이주하여 천도교의 포교 활동뿐 아니라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1919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즉, 그는 동학에 입도한 이래 죽기 직전까지도 동학과 천도교를 통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내포동학의 주도자이다. 방갈리 기포지 기포비가 건립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방갈리 기포지 기포비

■ 태안관아 동학농민군 점령지

- 태안읍 경이정2길 1(경이정), 태안군 백화로 54(목애당)



경이정(충남 유형문화재)



목애당(충남도 유형문화재)

- 동학농민혁명의 제2차 봉기 당시인 9월 말 태안 방갈리에서 처음으로 기포한 태안·서산 지역 농민군이 10월 1일 공격하여 점령한 곳이다. 문장로(文章魯, 1846~1919)는 태안 원북면 방갈리

에서 1893년 2월 초 박덕질을 통해 동학에 입도하였고, 그후 적극적인 포덕활동을 전개하여 방갈리의 접주가 되었다. 박인호가 이끌던 덕포의 기포령에 의하여 30여명의 동학 우두머리를 구출하기 위한 비밀회의가 방갈리에 살던 문장로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그들은 논의대로 태안관아를 점령하여 동학의 우두머리 30여명을 구출하였다. 이 여세를 몰아 면천 승전곡 전투, 신레원 관작리 전투, 홍주성 전투에 태안지역의 동학농민군을 대거 이끌고 참여했다. 태안 관아는 동학농민혁명 때 화재로 거의 소실되어 대한제국시기인 1900년대 초에 목애당과 근민당이 재건되었다. 성 밖에 있던 경이정(憬夷亭)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 태안 백화산 교장바위

- 태안을 성황단길 30
-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주성에서 패배한 이후 후퇴하여 재기를 노리던 많은 농민군들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희생된 곳이다. 태안 장작리에 사는 윤씨 부인은 총살당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 묻은 뒤 무덤에 뛰어들어 자결하였고, 태안에서는 작두를 사용해 참수하고, 태안 백화산 교장바위는 교수형과 총살·타살로 죽어가는 동학농민군의 붉은 피로 물들었으며, 태안여고 앞 개울은 죽은 동학농민군의 피로 얼룩지고 개구랑목에 시체더미가 쌓여갔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백화산 교장바위 1



백화산 교장바위 2

■ 태안 사창리 목네미샘 처형지

- 태안군 이원면 태포길 79-5
-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주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 체포된 농민군들이 참수된 곳이다. 태안 장작리에 사는 윤씨 부인은 총살당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 묻은 뒤 무덤에 뛰어들어 자결하였고, 태안에서는 작두를 사용해 참수하고, 태안 백화산 교장바위는 교수형과 총살·타살로 죽어가는 동학농민군의 붉은 피로 물들었으며, 태안여고 앞 개울은 죽은 동학농민군의 피로 얼룩지고 개구랑목에 시체더미가 쌓여갔다. 이원면 사창3리 목네미샘에도 목이 없는 시신이 있었으며, 관리 통개에서는 78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참살되었다. 안내판이나 관련 시설이 없다.



태안 목네미샘 처형지

■ 태안 통개 처형지

- 태안군 이원면 관리 관동 모래밭
- 태안지역 동학농민군이 참살된 곳이다. 태안 장작리에 사는 윤씨 부인은 총살당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 묻은 뒤 무덤에 뛰어들어 자결하였고, 태안에서는 작두를 사용해 참수하고, 태안 백화산 교장바위는 교수형과 총살·타살로 죽어가는 동학농민군의 붉은 피로 물들었다. 또한 태안 여고 앞 개울은 죽은 동학농민군의 피로 얼룩지고 개구랑목에 시체더미가 쌓여갔다. 이원면 사창3리 목네미샘에도 목이 없는 시신이 있었으며, 관리 통개에서는 78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참살되었다. 안내판이 없다.

■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과 전래비

- 태안읍 남문리 산 2-1
-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탑과 비석이다. 추모탑은 1977년 태안과 서산·당진·예산·홍성·아산 지역의 인사들이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건립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다음해 11월에 건립하였다. 전래비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군지부’에서 2000년 10월에 건립하였다.



태안 갑오동학농민혁명추모탑



태안 갑오동학농민혁명추모탑 유래비

Ⅲ.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현황

1. 현황

■ 연혁

- 2021년 8월 문영식 유물 기증
 - 2021년 10월 22일 개관
 - 2021년 10월 명예관장 문영식 위촉
 - 2022년 2월 유물구입
 - 2022년 6월 기획전시 <어제, 그리고 오늘 동학농민군의 정신> 개최
 - 2022년 10월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주관 공모전 출품작 특별전시 개최

- 2023년 5월 무궁화동산 및 나라사랑 포토존 조성
- 2024년 4월 공립박물관 등록
- 2024년 12월 기획전시 <1894> 개최
- 2025년 8월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운영(4회)
- 2024년 8월 가무악극 <독립의 꽃 옥파 이종일> 공연

■ 시설 현황

구 분	용 도	면 적(m²)	비 고
총 계		1,586.21	지상층 1,145.39m²
지하 1층	소 계	440.82	
	사무실 및 통신실	70.62	
	자료실	32.02	
	홀	124.74	홀, 화장실, 승강기, 계단실 등
	수장고	74.73	
	기계실 및 발전기실 등	96.36	
	세미나실	42.35	
지상 1층	소계	807.55	
	홀	224.06	홀, 화장실, 승강기, 계단실 등
	기획전시실/강당	99.06	
	상설전시실	530.39	
	추모마당	196.07	
지상 2층	소계	18.09	
	휴게실	63.00	
	홀	14.72	승강기 등
	계단실	18.09	

■ 인력 현황(2025년 기준)

- 4명(팀장 1, 학예연구사 1, 공무원 1, 기간제근로자 1)

■ 예산 현황

- 2022년 : 160,180천원(인건비 제외)
- 2023년 : 216,680천원(인건비 제외)
- 2024년 : 216,915천원
- 2025년 : 186,509천원

*2025년 예산 가운데 순수사업비는 행사운영비 : 26,360, 재료비 19,50(단위:천원)

■ 소장 자료 현황

- 334건 561점

*2023-2025년 변동 없음

■ 사업 추진 현황

- 2022년

- * 전시 : 기획전시 1건, 특별전시 1건
- * 체험프로그램 : 2회(기획전시기간 1회, 겨울방학기간 1회)
- * 교육 : 1회(전시해설사 교육)
- * 유물구입 : 1회(19건 24점)

- 2023년

- * 전시 : 기획전시 1건, 특별전시 1건
- * 체험프로그램 : 3회(기획전시기간 1회, 여름방학기간 1회, 겨울방학기간 1회)
- * 무궁화동산 및 포토존 설치
- * 교육 : 1회(전시해설사교육)
- * 유물구입 : 1회

- 2024년

- * 전시 : 기획전시 1건, 대관전시 1
- * 체험프로그램 : 4회(상설전시 1, 여름방학 1, 추석맞이 1, 새해맞이 1)

- 2025년

- * 전시 : 기획전시 1건, 대관전시 1
- * 체험프로그램 : 4회(상설전시1, 여름방학 1, 추석맞이 1, 새해맞이 1)
- * 교육 : 8회(초등, 중등학생 대상)
- * 공연 : 1회

■ 관람객 현황

* 2025년 6월 기준

구분	계	일반	미취학	초·중·고
2021년	1,549	1,078	48	423
2022년	7,803	5,230	2,215	358
2023년	8,617	5,125	2,446	1,046
2024년	7,551	4,564	1,971	1,016
2025년	5,014	3,111	1,231	672
합계	30,534	19,108	7,911	3,515

2. 활성화를 위한 잠재자원

- 태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및 인물
- 문화유산: 태을암, 태안마애삼존불, 태안읍성, 태안향교
- 기념관 시설: 세미나실, 특별전시실, 추모마당, 무궁화동산

■ 기념관 주변

- 교육기관(태안교육지원청, 태안초.중.고학교)
- 노인복지관
- 태안 재래시장 (서부시장)
- 자연 자원: 백화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주변 자원

3. 문제점

-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21.9.27.)에 의하면, 관장은 문화예술과장 또는 담당 학예연구사가 업무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고 명예관장을 둘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기념관의 활성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명예관장 역시 자문 역할만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음.
- > 전임 관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2023-2025년 기념관 운영이 정채되어 있음(인력, 예산, 사업, 관람객수)
- 순수 사업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 탄력성이 떨어짐.
- 전시 위주의 운영으로 전시 및 체험공간이 전시관에 국한되어 있음. 전시 관람과 교육 위주의 고정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의 요구에 맞는 전시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태안 동화농민혁명기념관 최고의 동력은 태안동화농민혁명기념사업회/유족회이나, 학생 백

일장 수상작 특별전시 외 상호 연계사업이 부족함.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유족회가 일정한 정도 기념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내용이 태안 동학농민혁명에 국한되어 있어 운영의 확장과 사업 탄력성이 떨어지는 만큼,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에 놓되 그 외연을 지역공동체로 확장하여 지역 활성화에 일조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음.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전시관에 함몰된 전시공간에서 벗어나 에코뮤지엄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 조례 제2조(설치 및 기능)에 의하면, 기념관의 기능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을 위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청일전쟁 및 항일운동 관련 자료의 취득·관리·전시·연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 만큼, 기념관 기능의 중심을 동학농민혁명 외에 동학농민혁명 이후 태안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태안 근현대역사로 확장 가능함.
- 현재 태안군은 역사박물관, 문화재단 등 역사문화기관이 없는 만큼, 기념관이 지역 박물관과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 개정 필요
- 아직 기념관이 주변 기관 등과 네트워킹되어 있지 못해 고립되어 있음
--> 주변 기관이나 자원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외연 확대 필요

IV. 개발잠재력 분석

1. SWOT 분석



2. 시사점

- 풍부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오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경험 축적이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념관 활성화를 모색해야 함.
-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념관 시설과 전문인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내 다양한 창조그룹과의 연대 협력이 필수적임
==> 기념관-지역사회-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함
- 기념관의 사업내용을 동학농민혁명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외연을 태안의 역사와 문화, 인문학, 문화예술 등으로 확장해야 함
- 관람객 타겟을 기념관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 외에 지역내 청소년, 지역 주민, 외부 관광객 등 다변화를 꾀해야 함
- 그를 통해 기념관이 단순한 태안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지역박물관, 문화기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함.
- 기념관을 찾아오는 관람객 중심의 수동적 운영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임관장을 두거나 전문기관 위탁경영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V.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방안

1. 활성화 개념

- 기념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념관, 관람객, 지역사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가능함
- 기념관의 장소성 강화를 통해 기념관이 가고싶고, 머무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장소로 자리잡아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장소브랜딩 전략이 필요함
 - 장소브랜딩 전략요소: 로그, 슬로건, 스토리텔링, 이벤트, 프로그램, 랜드 마크, 공간구성, 축제, 유무형자원의 활용, 네트워크 등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소브랜딩 전략요소 발굴과 강화
 - 매력적인 장소정체성 확립
 - 체계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
 - 차별화된 가치 창출 활동: 볼거리, 즐길 거리 확보. 체험, 강좌, 이벤트, 콘서트, 게임, 축제 등
- 기념관 활성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기념관 전시시설 및 편의시설의 개선

- 전문인력의 확충 및 콘텐츠 개발
- 문화 및 교육 기능의 강화
-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주민 및 유관 기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예산 확보

2. 추진 방향과 전략

■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념관 활성화

-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모든 조건이 열악한 바,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념관+소장유물+학예직+전문가+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활성화 가능성이 낮음
- 지역의 유무형 및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주민 참여를 통한 기념관 활성화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연구, 보존, 전시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험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지역내 창의적 인재들이 기념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해야 함
 - 태안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지역 예술가들의 창의적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념관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예: 충남문화재단의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등

■ 기념관의 공간과 주제 확장을 통한 기념관 활성화

- 기념관의 소장유물과 전시공간만을 대상으로 한 기념범위를 넘어서 태안군의 전체 공간과 다양한 장소로 기념공간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자원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결하여 접근해야 함
 - 기념관을 중심으로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접근해야 함
 - 동학농민혁명 외에 다양한 전시 및 체험 주제 발굴을 통해 주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역 문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함
- *예: 태안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태안 독립운동사, 음악회(추모마당), 피리 만들기, 세시풍습, 염색, 시조창 배우기, 인문학 강좌,

■ 연대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기반의 기념관 활성화

- 기념관과 연대·협력 가능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상호 지원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농업전시체험관, 태안문화원 등)

■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념관

- 전시와 교육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의 기념관 운영에서 벗어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융합적인 콘텐츠를 통해 기념관 활성화를 도모함

3. 활성화방안

㉞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방안

① 필요성

- 장소브랜딩 차원에서 양질의 콘텐츠 발굴은 기념관 활성화에 매우 중요함
- 콘텐츠 원형은 태안 동학농민혁명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하며, 태안의 역사, 문화, 인문학, 문화예술 등으로 콘텐츠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콘텐츠 설계는 수용자인 관람객과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

② 사업내용

■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도보탐방코스 개발

-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7개 가운데 4개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 전시관을 관람하고 유적지 탐방을 통해 추체험할 수 있는 연계코스를 개발하여 전시관 공간을 태안읍내로 확장함.
- 일차적으로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관광코스로 활용
- 관광코스로 확대할 경우 태안읍내 골목길, 시장으로 확대, 맛집 등과 연계 추진
- 코스: 기념관-> 골목길-> 시장-> 경이정-> 태안읍성-> 태안향교->기념관



■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역사투어

- 기념관을 기점으로 한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7개 유적지 버스투어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외에 연계 가능한 태안 지역 근현대 문화재인 ‘이종일(1979-1925) 생가(기념물, 원북면 옥파로 199-7)’, ‘이종헌(189■-1957, 독립운동가) 추모비(문화재자료)’ 등도 코스에 추가하여, 동학농민혁명 이후 한 국현대사에 끼친 영향력을 탐색하도록 함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백화산 산수길을 ‘동학둘레길’로 스토리텔링 개발 ---> ‘동학 치유의 길’

- 백화산 산수길은 현재 5코스가 개발되어 있음. 그 가운데 4코스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추모탑-교장바위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코스임
- 코스: 백화산주차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백화산(284m)->구름다리
->산신령기도처->태을암->마애삼존불입상->대림아파트->백화산주차장(5.3k)
- 태안군의 대표 관광코스로 홍보



■ 매달 ‘오늘은 동학기념관 가는 날’ 운영

- 매달 특정 요일에 ‘기념관 가는 날’을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함
- ‘기념관 가는 날’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들을거리 등 제공: 프리마켓, 특산물 판매, 특별 전시, 백화산 기행, 강좌 개최, 문화예술 체험

㉟ 문화기관으로서의 활성화방안

① 필요성

- 2025년 현재 태안군은 문화재단, 박물관, 군립 미술관 등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최근 문화복지를 넘어 문화인권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런 상황에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단지 동학농민혁명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지역의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소규모의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지역내 청년 문화기획자와 문화예술인과 적극 협력하여 양질의 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하여 동반 성장을 꾀할 필요성이 있음
- 그를 위해서는 기념관내 가용 시설(특별전시실, 세미나실, 추모마당) 외에 무궁화동산, 백화산 추모탑 가는 길 등 실외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시설의 제약과 한계를 최대한 넘어설 수 있을 것임

② 사업내용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예술인 지원사업과 연계(태안군, 충남문화재단)
 - 태안의 역사문화, 민속, 지명 등을 원형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충남문화재단 지원사업
 -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협력, 기념관에서 문화학교 진행
- 추모마당을 이용한 음악회, 전시회 등
- 추모마당을 이용한 영화 상영
- 무궁화 꽃 피는 날 페스타 개최(기념관 추모마당-무궁화 동산 일원)

㉟ 교육기관으로서의 활성화방안

① 필요성

- 최근 박물관이 전시 외에 교육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역시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기념관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교육기능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그를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동학농민혁명 외에 연관된 한국역사, 세계역사, 사회, 윤리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② 사업내용

- 인문학 시민강좌(역사, 철학, 문학, 동학 등)

- 토요 전통문화강좌
- 여름 문화학교: 청소년 동학캠프
- 교사 연수: 태안 역사문화 및 동학농민혁명 강좌 *태안교육청 협조
-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장학습
- 학교와 연계한 방과후교실 개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자료 및 게임이나 퀴즈형태의 교육콘텐츠 개발
- 찾아가는 동학교실 운영: 직접 일선 학교나 소외지역과 계층을 찾아가는 순회 전시와 교육을 통해 기념관의 외연을 확대함

㉡ 홍보마케팅 강화

① 필요성

- 자체 학예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우호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념관이 되도록 주민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를 위해 멤버십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기념관의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한 C.I.를 개발하여 SNS, 유튜버, 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한 연계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② 사업내용

- 동학 워킹그룹 양성과정 개설
 - 지역내 창조그룹 대상,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맨파워 강화
 - 워킹그룹 역할: 기념관 해설, 기념관 콘텐츠 개발 및 진행, 기념관 네트워킹, 기념관 홍보
- 태안 동학농민혁명 연구모임(동아리) 지원
- 태안동학여행단 운영
 - 지역 내외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여행
 - 태안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여행 추진(공무원, 학교교육 관계자, 예술인, 기업인 등)
 - 여행단을 통해 기념관 적극 홍보마케팅 추진, 파급효과를 통한 지속적인 관람객 확보
- 기념관 멤버십 제도 운영
 - 회원제를 통한 안정적인 지지기반 확보
 - 회원들에 대한 일정한 서비스 제공
 - 개인 외 단체, 기관, 기업 등을 망라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멤버십
- SNS를 통한 기념관 안내 및 홍보
- 1인 미디어시대인 만큼 다양한 숏폼을 제작,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
- 사이버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구축(홈페이지를 겸함)
- 주요 관광지에 홍보 포스터 게시
-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념상품 개발, 판매
-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홍보단 운영(워킹그룹, 크리에이터, 연구모임 등)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

이 윽 길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1. 기념사업 현황

1) 조직

(1)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강원	경기	서울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부산	경북	경남	사업	합계
2	2	1	10	2	1	5	7	1	7	3	2	43

(2)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공주	논산	당진	서천	아산	예산	천안	태안	유주	준비	사업	합계
1	1	1	1	1	1	1	1	4	3	2	17

2) 내용

- (1) 유적지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중심이다.
- (2) 기념비, 기념탑, 기념관, 조형물, 기념공원 건립을 추진한다.
- (3) 추모제, 위령제, 문화축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3) 평가

- (1) 자발적인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에 의존한다.
- (2) 지자체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다르다
- (3) 지역적 한계에 머물며 향토사의 경향에 영향을 받는다.

2. 기념사업 방향

1) 개념의 정립

- (1) 시대정신을 반영한 현재성을 구현한다.
- (2) 미래가치를 담지한 미래성을 추구한다.
- (3)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성을 확보한다.
- (4)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2) 보편성의 정립

- (1) 전국화
동학정신의 재현과 현대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사회문화운동을 펼친다.
- (2) 세계화
인간존중, 생명존중, 공동체윤리의 보편적 가치로 인류문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 (3) 미래화
19세기의 혁명사상으로부터 21세기의 생명평화운동으로 재탄생한다.

3) 방법론의 정립

- (1)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확립한다.
- (2) 시대사조에 맞는 새로운 언어로 해석한다.
- (3) 시대경향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한다.

3. 새로운 모색

- 1) 전제
혁명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역사인식의 전환을 모색한다.
- 2) 관계
 - (1) 유적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한다.
 - (2) 지역의 기업과 문화기관의 협업을 추진한다.
 - (3)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4)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5)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3) 운영
 - (1) 디지털 콘텐츠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2) 교육용 앱이나 플랫폼을 개발한다.
 - (3) 지속가능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기념상품 등을 개발하고 재원을 확보한다.

4) 관리

평가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4. 시대정신의 모색

2025년 기억[1] : 12·3 윤석열 내란(민주주의의 위기)

- 광화문 67차례 집회, 누적 1,000만명 참여, 시민행진 60회(145km), 발언 1.030개 공동의장(13명) 14일간 단식농성, 수어통역사 166명, 의료인 2,000명, 변호사 1,000명 참여
- 전국 200개 도시에서 1,800회 이상 집회 진행
- 전국 1,739개 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
- 국내외에서 후원금 57억 모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의 중요함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지난 12·3 윤석열내란으로 ‘역사를 잊으면 오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민주시민들의 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기에 한강 작가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강 작가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가 군대를 동원한 윤석열 쿠데타를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한강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87. 6월항쟁 등 모든 민주항쟁의 역사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학->동학농민혁명->3·1만세혁명->4·19혁명->5·18광주민중항쟁->87년 6월항쟁->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역사가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 (1) 한강 작가의 물음
- (2) 민주시민들의 항쟁
- (3) 응원봉 세대의 출현
- (4) 동학농민혁명의 소환
- (5) 동학민주주의 확립(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실현)

5. 미래가치의 발견

2025년 기억[2] : 폭염과 폭우(기위재앙 시대의 도래)

[폭염]

-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약 2도 이상 상승
- 33도 이상 폭염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확대됨
- 온열환자, 노약자 사망자 증가

[폭우]

-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 전국에서 17명 사망, 수천채의 주택과 수만 ha의 농경지 피해
- 산사태, 도로붕괴 등 복합피해 발생

[기후]

-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4~1.5도 상승
-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이상으로 인류역사상 최고수준
-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대기중 수증기량 증가
- 열섬현상과 도시집중으로 국지적 폭염 심화

*동학의 생태주의(생명사상)

해월의 삼경사상(생명윤리의 최고봉)

- 경천 : 나에게 들어와 있는 마음으로써의 하늘을 공경하라
- 경인 : 신분, 계층, 남녀를 넘어서 서로 공경하라
- 경물 : 생명, 무생명, 유기물, 무기물, 인간이 만든 물건까지 공경하라

* 한살림선언 (1989년 생명존중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선언)

-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초래한 죽음의 문명을 비판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살림의 문명을 지향
- 경제발전 중심의 산업문명을 비판하고 생활전반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

1) 현황

- (1) 청년세대들의 저항
- (2) 기성세대들의 좌절
- (3) 개인 도덕적 실천의 함정

2) 진단

- (1) 서구 기독교, 인본주의 사상의 한계(인간중심)
- (2) 인간의 욕망(과학기술문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 (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기술문명산업화의 쌍생아

3) 대안

- (1) 한살림선언(생명평화사상의 재발견)
- (2) 동학생태주의 선언(기후위기 대안사상으로 발전)

6. ‘동학혁명’의 시대

명칭상 동학농민혁명과 동학혁명은 혼용되고 있다. 동학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요지는 2가지다. 하나는 동학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니 동학혁명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농민비율이 소수이니 농민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1894년 혁명의 대의는 조선왕조 혁파와 일본제국주의 분쇄였다. 그리고 참여자 다수가 농민들이었으니 동학농민혁명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이 후천개벽까지 지향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동학의 핵심사상이 개벽사상과 생명사상이라면 이를 이념으로 하는 혁명은 동학혁명이라 해야 할 것이다. 기술문명의 폐해로 기후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기는 진정한 동학혁명이 절실한 때이다. 19세기 혁명을 동학농민혁명이라 한다면 21세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동학혁명이 대안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담지해야한다면 동학생태주의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혁명적 결단이 요청된다.

▶ 참고 [1] 동학농민혁명의 명칭 변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이래 1910년도 까지 동학란 또는 동학도의 난으로 불렸다. 일제강점기에는 동학당의난 등으로 왜곡되거나 동학운동 등 중립적 용어로 혼용되었다. 광복이후 1980년에는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운동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국가 공식용어로 명문화되었다. 2019년에는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리고 202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공식 등재됐으니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통일된 이름을 갖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100년 이상을 동학란 등으로 불리다가 특별법에 이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고 나서야 표준국어대사전에 동학농민혁명으로 공식 등재된 것이다.

▶ 참고 [2] 독립운동유공자 서훈운동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은 1977년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만 50년 동안 논쟁만 이어졌다. 특별법 2조에 참여자란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하며 1조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2021년 『2차동학농민혁명참여자서훈국민연대』가 출범하여 백방으로 명예회복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현재 통과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고 국어대사전에 공식 등재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인 독립유공자 서훈은 실현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은 5.18광주민중항쟁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하고 2차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당장에 실현되어야 한다.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학술대회

주제발표 2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계승 방안

정 을 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계승 방안

정 을 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충청남도와 함께 4년 동안 충남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전라도에 가려져 있던 충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역사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4년 동안의 성과물로 ‘충남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라는 개설서 1권(500쪽 분량)이 발간되었고, 그 교재를 토대로 충남 권역을 5개(서북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공주)로 나누어 지역별 맞춤형 동학농민혁명 교재를 발간하였다. 또한 ‘충남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의의’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문화원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자, 충남지역에 산재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충남 15개 시군에 분포한 유적 총 94개를 현장조사하여 정확한 위치와 역사성을 도출하여 조사표를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과 답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충남동학여지도’라는 전자지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이 전자지도와 교재 등을 활용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답사와 교육을 통해 충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 알리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오랜 노력을 통해 충남도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었을 때, 전봉준, 전라도가 아닌 우금치전투, 박인호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충남이라는 넓은 지역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유적이 몇 개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조사 뿐 아니라 관련 자료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총 94개의 유적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산 하나 하나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지도로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통해 기록화였다. 해당 유산과 관련한 동학 인물, 사건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고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충남 전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총 94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

1) 충청남도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동학농민혁명연구사업 최종보고서』, 2024 참조.

시군	종류	지정 여부	유산명	수
계룡	전투집결	X	판치전투지	1
공주	전투집결	향토유산1, 사적1	집회터, 충청감영, 궁원 집결지 등	15
	인물		최시형은거지, 조병갑묘 등	6
	기념시설		오곡동 돌탑, 정란사적비 등	2
금산	전투집결	도기념물1	소라니재 전투지, 제원기포지 등	6
논산	전투집결	국가민속문화유산1,	황화대 전투지, 노성관아 등	6
	인물	기념물1	은진 처형터	1
당진	전투집결	향토유산1	승전곡 전투지, 여미리 집결지 등	3
	인물		합덕 동학농민군 무덤, 손병희선생 유허지	2
보령	전투집결	사적1	충청수영	1
	인물		수랑굴 동학농민군 은신처	1
부여	인물	사적1	건지동학살터	1
	전투집결		대방포점령지, 홍산관아 등	3
서산	전투집결	사적1, 도유형문화유산1	원별 집결지, 매현전투지 등	6
서천	인물	문화재자료1	초토사 이승우 창덕비	1
	전투집결		건지산성 전투지, 화양산 전투지 등	6
아산	전투집결	도유형문화유산1	아산관아터, 아산항 잠입지 등	3
예산	전투집결	X	대흥관아, 역리주둔지 등	7
	인물		박인호 생가터와 유허비, 이승우 영세불망비	2
	기념공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1
천안	기타	X	동경대전간행소터	1
	인물		이희인피체지, 집단 처형지 등	5
	전투집결		세성산전투지, 작성산 집결지 등	4
태안	인물	도유형문화유산1	목네미샘처형지, 교장바위 등	3
	전투집결		점령지, 방갈리 기포지	2
	기념시설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과 비석	1
	기념공간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1
홍성	인물	사적 1	홍주의사충, 김병돈 유공비	2
	전투집결		홍주성 전투지	1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충남 15개 시군 중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단연 공주지역이다. 공주는 총 23개의 동학 관련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 94개의 문화유산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14건으로 6.7%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2.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현황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태안지역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유산은 총 7개가 확인된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인물 관련 유산이 2개, 전투·집결과 관련한 유산 2개, 기념시설은 1개, 기념공간은 1개이다.

1) 사창리 목네미샘 처형지

목네미샘 처형지는 태안군 이원면 태포길 79-5번지에 위치해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주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 체포된 농민군들이 참수된 곳이다. 일제의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탄압은 처참했다. 태안 장작리에 사는 윤씨 부인은 총살 당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 묻은 뒤 무덤에 뛰어들어 자결하기도 하였으며, 태안에서는 작두를 사용해 참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태안 백화산 교장바위는 교수형과 총살로 죽어가는 동학농민군의 붉은 피로 물들었다. 또한 태안여고 앞 개울은 죽은 동학농민군의 피로 얼룩지고 개구랑목에 시체더미가 쌓여갔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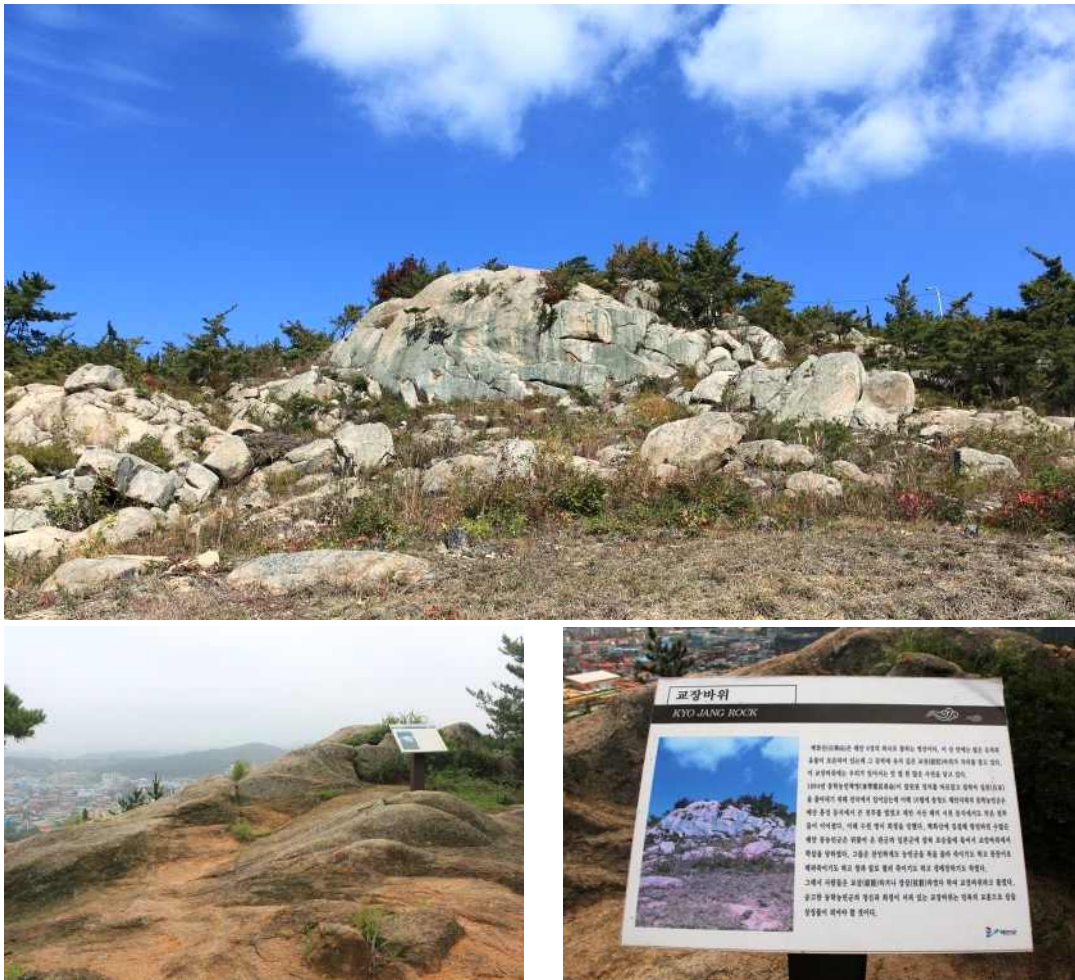
이원면 사창3리의 목네미샘에도 목이 없는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쌓여 있었고, 관리 통개에서는 78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참살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정확한 위치 고증이 필요하고, 관련 증언이나 자료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안내판이나 관련 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연구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 백화산 교장바위

교장바위는 태안군 태안읍 성황단길 30에 위치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주성에서 패배한 이후 후퇴하여 재기를 노리던 많은 농민군들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희생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교장바위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교살(絞殺)과 장살(杖殺)을 줄여 붙여진 동학농민혁명군과 관련한 명칭이라는 의견과 일제강점기 태안보통학교 교장 나카오이타로[中尾猪太郎]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여 이름을 새긴 명칭이라는 의견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고증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수행되었고, 결론적으로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견이 모두 타당하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장바위의 역사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

시되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교장바위 일원은 일제강점기 태안의 아픈 역사와 애환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으며, 따라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연구자들은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태안이라는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교장바위를 태안지역 동학의 상징적 장소로 부각하고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 동학농민군 점령지, 태안관아

경이정은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2길 1, 목애당은 태안군 백화로 54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경이정과 목애당 모두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제2차 봉기 당시인 9월 말 태안 방갈리에서 처음으로 기포한 태안과 서산 지역 농민군이 10월 1일 공격하여 점령한 곳이다.

문장로(文章魯, 1846~1919)는 태안 원북면 방갈리에서 1893년 2월 초 박덕철을 통해 동학에 입도하였고, 그후 적극적인 포덕활동을 전개하여 방갈리의 접주가 되었다. 박인호가 이끌던 덕포의 기포령에 의해 30여명의 동학 우두머리를 구출하기 위한 비밀회의가 방갈리에 살던 문장로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그들은 논의대로 태안관아를 점령하여 동학의 우두머리 30

여명을 구출하였다. 이 여세를 몰아 면천 승전곡전투, 신례원 관작리전투, 홍주성전투에 태안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대거 이끌고 참여했다. 태안관아는 동학농민혁명 때 화재로 거의 소실되어 대한제국시기인 1900년대 초에 목애당과 근민당이 재건되었다. 성 밖에 있던 경이정(憬夷亭)은 현재까지 그 모습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태안관아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증언과 자료들이 확인된다. 이미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활용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4) 방갈리 기포지

방갈리 기포지는 태안군 태안을 원북면 발전로 457 화력발전소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태안의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문장로(文章魯, 1846~1919)는 태안 원북면 방갈리에서 1893년 2월 초 박덕칠을 통해 동학에 입도하였고, 그후 적극적인 포덕활동을 전개하여 방갈리의 접주가 되었다. 박인호가 이끌던 덕포의 기포령에 의하여 30여명의 동학 우두머리를 구출하기 위

한 비밀회의가 방갈리에 살던 문장로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그들은 태안관아를 점령하여 우두머리 30여명을 구출하였으며, 이후 당진과 예산, 홍주의 전투에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1894년 10월 29일 홍주성에서 패한 이후 관군의 체포령을 피해 태안일대 해안의 토굴과 야산에 은신하면서 예포 동학 조직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900년 동학의 지도부들이 지시한 조직 강화 밀명을 받고 태안 수접주로 임명 되어 조석헌 등과 함께 비밀스럽게 조직 재건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로도 관군의 체포령을 피해 충남의 각 지역을 떠돌면서 포교활동을 벌이다가 1910년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무한천변의 갈대밭으로 이주하여 천도교의 포교 활동 뿐 아니라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1919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즉, 그는 동학에 입도한 이래 죽기 직전까지도 동학과 천도교를 통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내포동학의 주도자이다.

현재 기포지에는 기포비가 건립되었으나, 화력발전소 내부라는 위치적인 한계로 인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태안지역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기포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서, 문장로라는 인물의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스토리텔링화하여 관련 길을 조성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에 충분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5)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과 전래비

추모탑과 전래비는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산 2-1에 위치해 있다.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탑과 비석이다. 추모탑은 1977년 태안과 서산과 당진, 예산, 홍성, 아산지역의 관련 인사들이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건립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다음해 11월에 건립하였다. 전래비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군지부'에서 2000년 10월에 건립하였다. 이 유산들은 지역에서 결성한 기념사업회가 자체적으로 건립한 탑과 비석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으나, 다른 유산들과 연계하거나 공원화, 혹은 요즘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통개 처형지

통개 처형지는 태안군 이원면 관리 관동 모래밭에 위치한다. 태안지역 동학농민군이 참살된 곳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태안지역의 유산들이 일제의 탄압과 연관성이 있는 가슴 아픈 유산이다. 이 통개 처형지에서는 78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참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들은 많이 확인되지만, 정확한 위치에 대한 고증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사업이나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교육이나 답사 장소로 활용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념관은 태안군 태안읍 성안1길 28-23에 위치한다.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으며, 충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생긴 기념관으로서 의미가 깊은 곳이다. 충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 인물, 자료 등이 아

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심도 깊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한다면 매우 뜻깊은 기념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태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 계승 방안

1) 전투지

동학농민혁명의 전투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홍천풍암리동학혁명군전적지(강원도 기념물),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전라북도 기념물), 정읍 황토현 전적(사적), 공주 우금치 전적(사적), 장성 황룡 전적(사적), 장흥 석대들 전적(사적), 상주 동학교당 유물(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상주 동학교당(경상북도 민속문화재), 태안 갑오동학혁명 순도자 명단(충청남도 등록문화재),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국가등록문화재),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국가등록문화재) 총 11건이 확인된다.

이는 전체 국가유산의 2.6%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비율이며, 이 중 전투지(전적지)와 관련한 유산은 단 6건이 전부이다. 충남의 전투지(전적지)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공주 우금치 전적(사적)이 유일하다. 다만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기념비 혹은 안내판을 세우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투지로 확인되는 곳은 총 78곳이다. 이 중 전투지에 안내판을 설치한다거나 기념비, 기념탑, 동상 등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전투지는 총 15곳으로 19.23%의 비율이다. 충남에서 확인되는 전투지는 공주 우금치전투지를 포함하여 총 22곳인데, 이 중 기념비나 기념탑, 안내판 등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천안 세성산 동학농민군 전투지를 포함하여 총 4곳으로 확인된다. 다만, 전투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념비, 기념탑, 추모관이 설립되어 활용되는 있는 곳도 총 10여 곳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전투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유하고 있는 도·시·군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이 점차 강조되면서 활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전투지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음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전국의 전투지 총 78곳 중 기념비, 안내판 등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는 곳은 총 15곳으로 20%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로 조사되었다.

태안지역의 동학농민군의 점령지인 태안관아나, 방갈리 기포지 모두 충남을 대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전투지로서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모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태안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고 관련 자료들을 체계화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 인물 및 생가터(처형지 포함)

동학농민혁명 관련 인물이나 인물의 생가터, 처형지 등의 유적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 지정보다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관련 인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터'라는 빈 곳이거나 특정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관련 인물이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물과 관련된 유적인 경우는 대부분 생가라면 생가를 복원하기보다는 생가터라는 표식을 알리는 안내판 등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물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을 조성하거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교육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생가터는 현재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모두 안내판 등을 조성하는 등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태안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동학농민혁명군이 집단적으로 처형된 곳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처형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지만, 가까이 공주지역의 용못(송장배미, 우금치전투에 참여한 동학농민군들이 묻힌 곳)은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안내판 뿐 아니라 비석, 조형물 등이 세워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목된다. 태안 역시 목네미샘 처형지와 통개 처형지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아픈 일제강점기 역

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충남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중 대표성을 갖는 백화산 교장바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 지정 신청을 하여 내포지역, 더 나아가 충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계승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계승 방안」 토론회

홍 성 덕

전주대학교 교수

태안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북접의 중요 활동 거점 중의 하나였으며, 백화산 항쟁은 홍주성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항전한 곳으로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의 하나이다.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조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태안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94개소의 충남지역 유적지 중 7개소가 위치해 있다. 발표문에서 각 유적지별로 현황을 정리하였고, 계승 방안으로 전투지 국가유산 지정과 목네미샘·통개 처형지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제안하였다.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계승 방안에 관해서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태안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발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먼저 기초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계승·기념사업과 병행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토론자로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 및 선양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과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및 계승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기념 및 선양사업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은 기념의 대상에 관한 고증과 학술연구이다. 기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기념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규명과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지역 내의 기념·선양 사업은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지역정체성 측면과 맞닿아 있다. 지역 내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재발견을 통해서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 문화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념·선양사업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

- 학술연구: 자료조사 및 수집, 번역, 학술대회, 연구자 양성 지원, 학술교류, 연구 저서 출간 등 선현에 관한 학문적 연구 사업
- 공간조성: 서원·사우의 복원,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전시관, 생가(고택) 복원 등 선양을 위한 건축 공간의 조성 사업
- 추모기념: 제향 봉행, 기념식, 축제, 각종 공모(백일장) 사업,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전시회 등 선현에 대한 추모와 기념행사

- 교육홍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체험 교재의 제작,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소식지 발간 등 선현의 사상 보급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 문화예술: 공연(연극, 뮤지컬, 창극 등) 제작, 문학작품(시, 소설 등), 미술전시,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 영화·에니메이션·웹툰 등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태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계승사업 역시 위의 분야에서 모두 진행 중에 있다. 지속적인 학술대회를 통해 역사적인 내용을 규명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추모제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9에는 뮤지컬 ‘왓볼’을 공연하기도 했다.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유념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속성(持續性)입니다. 기념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선양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가 분명해야 하고,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공감대 형성은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판단하기에 너무 당연하더라도 지역 주민 중에는 털 공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확장성(擴張性)입니다. 확장성은 세대의 확장과 기념사업 대상의 확장·연결 그리고 지역 간 교류·확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세대의 확장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확장되고 있으나, 사업 주체의 세대 확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념사업은 지역 내 기념해야 하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연결을 통해 확장되어야 하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해서 전국화, 현재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향성(志向性)입니다. 기념사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과거 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기념사업의 대상은 과거의 사건과 인물이지만 목적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 현재와 미래의 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념사업의 미래지향적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미래 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젊은 감성에 기반한 방안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태안 동학농민혁명 계승 사업 제언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7개소 중 목네미샘, 방갈리 기포지, 통개 처형지를 제외하면 모두 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충남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기념관으로 그 의미가 높다. 특히 기념관의 위치가 항전지였던 백화산 교장바위와 1977년 세워진 ‘갑오동학농민혁명추모탑’과 인접해 있다.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태안 동학농민혁명 계승 사업의 핵심 기관으로 그 역할을 더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관의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교육과 연구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 정보 접근성 확대

태안군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태안군 누리집 내 태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 군 누리집 내 태안의 역사 > 태안의 발자취에도 동학농민혁명 설명은 없다.(아예 조선시대 전체가 다 빠져있긴 하다) 태안군 관광 누리집인 오감관광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만 소개되어 있을 뿐 관련 유적지, 추모제 등은 일체 소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태안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정보는 관광지도 등 태안군 내의 공식 홍보물 어디에서도 기념관을 제외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태안군의 홍보가 이 정도이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태안군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인지 알수 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별도 누리집을 운영해야 한다. 관광 누리집 내 기관소개와 공지사항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는 태안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것과 같다. 태안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동학농민혁명 공원 조성 및 태안역사길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추모비, 백화산 교장바위 일원을 태안동학혁명 공원으로 개발하고, 태안읍성, 목애당, 경이정을 연결하는 태안역사길을 조성하면, 조선시대 태안읍성(왜구방어 목적)과 동학혁명 항쟁을 연결하는 이야기 길을 만들 수 있다. 전국에 현존하거나 복원된 읍성은 많다. 태안의 읍성 복원이 차별화하려면 이야기가 있는 읍성이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왜구와 동학은 태안읍성의 주요한 이야기가 된다. 현재 태안시티투어에 '동학농민혁명'은 없다. 서해안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만 개발되어 있으며, 주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하는 탐방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 태안 동학농민혁명과 지역 정체성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 할 수 없는 것이 지역 내의 역사적 사건과 지역 정체성의 관계이다.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만을 고려하면 태안은 공주(15개소), 예산(10개소), 천안(10개소) 등에 미치지 못한다. 유적의 많고 적음보다는 지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의 문제이다. 태안의 동학농민혁명은 태안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지어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교장바위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동학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인식이 공존한다. 다양한 인식을 하나로 묶는 것은 지역정체성에 찾아야 할 것이다. 태안의 동학농민혁명은 태안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 태안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역 내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태안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당진, 예산 등의 지역과 연계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개발한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남 내에 주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써 부족해도 여럿이 모이면 교육의 파급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이야기로 승부

태안군이 동학농민혁명 계승의 중요 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유적지 등 가시적인 유적지와 동학농민혁명사에서의 위상으로 볼 때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야기이다. 이미 2017년 『태안에서 점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을 간행 290명의 이야기를 발굴했고, 2019년에는 뮤지컬 횃불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야기가 가지는 힘은 크다. 이야기의 발굴은 더 극적인 이야기로 회자되어야 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교장바위 이야기는 문화콘텐츠 요소가 충분하다. 이야기(스토리)는 원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기본이며, 수집만 해서 콘텐츠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각색과 이야기 구조화가 필요하다. 스토리는 있지만 스토리텔링은 없고, 스토리텔링은 있는데 스토리 기반 콘텐츠는 없다.

태안 동학농민혁명의 스토리, 스토리텔링, 스토리 기반 콘텐츠 등 삼박자가 함께 움직일 때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은 지속가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학술대회

종합토론



MEMO

MEMO

MEMO

2025년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학술대회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의 새로운 모색

일 시 : 2025. 10. 30(목) 14:00~17:00

장 소 :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

주 최 :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후 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 원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발행일 : 2025년 10월 30일

발행처 :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성안1길 2-27

편 집 : 도서출판 헤민기획
